

근대성을 넘어 선 새로운 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

철학과 신승환 교수는 최근에 논문 「디지털시대의 인간이해와 인문학」(2019)을 발표하고, 저서로 『형이상학과 탈형이상학』(2018)을 출간했다. 이 책은 철학의 핵심 주제인 형이상학의 기원과 유래, 그 내용을 설명한 뒤, 이를 바탕으로 향후의 형이상학이 무엇을 지향하며 어떤 형태로 발전해 가야할지를 밝히고 있다.

신 교수는 그동안 왕성한 연구 및 저술활동을 통해 『해석학 - 새로운 사유를 위한 이해의 철학』(2016)을 포함 9권의 저서, 9권의 공저서, 3권의 번역서, 73편의 학술지 논문을 발표했다. 2019년에는 「디지털시대의 인간이해와 인문학」을 포함 5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1997년부터 우리 학교에서 현대 철학을 연구하며 강의하고 있는 신 교수는, <한국하이데거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경향신문, 경인일보 등에 꾸준히 칼럼을 기고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신 교수는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대 세계를 구성하고 체계화한 시대정신은 서구 근대의 철학이 만들어낸 이른바 근대성(modernity)이다. 이 근대성은 18세기 이래 오늘날까지 전 세계의 체제를 결정하는 토대적 철학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위기와 문제는 이 체계와 패러다임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근대성을 넘어 다음 시대와 세계를 체계화할 새로운 사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앞으로의 연구는 근대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반성을 바탕으로 해서 21세기 이후를 해명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철학 패러다임을 이끌어내는 데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런 철학의 원리를 신교수는 생명성에서 찾으려 한다. 생명성은 생명의 원리에서 이끌어낸 형이상학이면서, 또한 생명이 생명이며 삶이 되도록 하는 철학적 토대를 일컫는 말이다.”

- 학술활동 등 대외활동 -

신 교수는 △한국하이데거학회 회장 △한국가톨릭철학회 회장 △철학연구회

회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위원장 △가톨릭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가톨릭 신학과 사상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경인일보에 월요논단을 기고하고 있다.